

관료의 몰락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장관을 역임한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선배 때문에 관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정말 뼈아픈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다. 후배들의 앞날이 더 걱정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가 말한 ‘한 선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공무원 사회에서 한 전 총리는 신화적인 존재였다. 통상산업부 차관, 재경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다시 한번 총리직에 올랐다. ‘관료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을 정복한 인물이다. A씨는 “관료로서 명예와 정점을 모두 누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정의롭지 않은 길에 동조하고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워도 선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 후배들이 받은 상처는 이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 출신 후배들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가 우려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함께 관료에 대한 신뢰 붕괴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인다. 그들은 정치 격랑 속에서도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와 정책은 영원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전직 장관 A씨가 한탄한 후배들의 ‘캄캄한 앞날’ 역시 이 자부심의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다.

현실은 차갑고 ‘냉정’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주요 기관 인사에선 관료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묻어난다. 관료 세력에 더이상 국정 파트너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변호사 출신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호탄이었다. 지난 19일 마감한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 공모 결과 관료 출신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과거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출신의 관료가 퇴임 후 거쳐 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여의도 금융가와 관가 안팎에선 이미 공모 전부터 청와대 라인을 통해 “관료 출신은 지원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괜히 지원했다가 눈치 없는 구태 관료’로 찍혀 낙마하느니 아예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관료 불신으로 초래된 인사 절벽은 하반기 금융권을 더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2월에는 금융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두 사람 모두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을 거친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이다.

통상 임기 몇 개월 전부터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한마당이 무성해지며 논의가 활발해진다. 금융위나 재정경제부 출신의 관료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물밑 작업을 벌인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기류가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협회장 자리는 관료 출신들의 전유물이자 요직 중의 요직이었지만, 지금은 감히 쳐다보기조차 힘든 자리가 됐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관료 배제 스탠스’가 확실해지면, 올 연말 차기 보험 관련 협회장은 과거의 공식이 깨질 개연성이 크다. 관료 출신 배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차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관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금융당국과 시장의 ‘소통 불통’도 우려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관료든 민간이든 능력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배의 과오로 후배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전직 장관. 실제로 ‘관료의 몰락’을 마주하고 있다. 관료 사회가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해 마주한 현실이다. ‘욕심 많고, 영혼 없는 관료’가 사라져야 다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여신협회장, 민관보다 중요한 것은?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7개월 만에 가동된 여신금융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의 공모 결과 차기 회장으로 민간 출신의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서류 심사는 시작되지 않은, 원서 접수 단계에 불과한 시점이다. 접수된 서류를 심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유력 후보자 평이 나오는 아이러니다.

청와대, 금융당국 등 윗선에서 관료는 지원조차 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 현 정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배제 성격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여신협회장 선거에서는 관피아 논란

이 꼬리처럼 따라 붙었다. 관료 출신이 요직을 맡는 관행이 되풀이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선거마다 후보자의 출신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것도, 이번 선거에서 관료는 지원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관 출신을 따지기 전에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피아·모피아에 대한 반감의 본질은 ‘외풍’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만으로 선거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문제는 관료 출신 여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듯한 분위기, 선거 구조가 무력해졌다는 시선이 반발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 역시 개과천선은 없었다. 윗선에서 “관료는 지원조차 말라”는 지시 사항이 내려

왔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선거 시스템, 투표권을 무력하게 한다. 개입은 여전하다. 그저 관피아가 민피아(민간인 출신+마피아)로 변신했을 뿐이다.

실제 이번 선거의 민간 출신 후보군에서도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전라남도, 중앙대, 현 정부 정책보좌관 경력 등 이재명 대통령과 접점으로 읽힐 만한 요소들이 거론된다.

지금 카드업계는 다크호스가 아닌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민’이나 ‘관’이냐의 구분이 아니다. 어렵게 상황을 타개할 역량이 있는 인물인지의 여부다.

업계는 수익원 발굴 문제, 규제 완화, 조달 금리 상승 부담, 건전성 문제 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회장을 원한다. 민간 출신이든 관료 출신이든, 연출로만 뽑힌 회장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wotis4187@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하늘도 귀하의 의지를 알고 돕습니다. 60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72년생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습니다. 84년생 덕이 멀리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49년생 혼자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1년생 동거나 선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73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85년생 취업이 용이할 것입니다.



50년생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에 조심하세요. 62년생 이득이 될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4년생 과욕을 삼가하세요. 86년생 적성과 급여 사이에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51년생 소신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63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유행성 독감을 주의하세요.



52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64년생 물건을 잃었으므로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76년생 운전시 각별히 주의하세요. 88년생 만사형통한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53년생 늘 조심성 있게 천천히 나아가세요. 65년생 중심을 잡지 못해 마음이 몹시 심란합니다. 77년생 상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89년생 음과 양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54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 보세요. 66년생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78년생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90년생 항상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55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67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79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어렵습니다. 91년생 인내심과 끈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56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68년생 괜한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0년생 이루어지는 만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92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57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9년생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81년생 도움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93년생 험사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58년생 평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70년생 분명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94년생 큰 지출이 예상됩니다.



59년생 복운을 만나 마음까지 평온해 지겠습니다. 71년생 능력은 짧고 보잘것 없는데 버리는 것은 원대합니다. 83년생 기다림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95년생 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복 부르는 초파일 연등

신록이 짙어지는 요즘, 거리에 나서면 형형색색의 연등이 눈을 가득 채운다. 석가탄신일인 4월 초파일이다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연등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깊은 뜻과 복됨이 함께 숨어있다.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넘어, 왜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밝히고 복을 빌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다. 초파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등이 떠오른다. 불교에서 등불은 지혜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지혜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게 만든다는 의미가 연등에 담겨 있다. 초파일이면 누군가는 지식의 건강을 기원하고 누군가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소망한다.

연등이 복을 가져온다는 말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등을 공양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정성으로 등을 달고 불을 밝히면, 간절한 마음이 우주의 기운과 닿아 부처님의 기쁨을 입게 된다. 정성이 깃들어 있는 등불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막혔던 운을 열어준다. 거리의 예쁜 연등을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연등을 구경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복을 구경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에게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다면, 초파일에는 내 이름이 적힌 등을 직접 달아야 한다. 연등을 달아야 부처님과 나와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고 가피를 받는다. 작은 등 하나라도 직접 공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되어 운세의 흐름을 바꾼다. 연등의 등불이 삶의 그늘진 부분을 밝게 해주고 복을 끌어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1	7	9	6	2	9
7	9	6	9	2	2	1	8	6
2	1	9	6	8	9	6	2	2
9	2	9	6	8	7	2	1	2
2	2	8	7	9	1	9	6	2
9	6	7	2	2	2	8	1	9
6	9	1	2	2	7	9	6	8
1	7	2	8	9	6	2	9	6
6	8	2	9	1	6	2	9	7

6	6	2	8	9	9	7	1	2
8	7	9	2	2	2	1	6	9
2	1	9	2	7	6	9	8	2
9	9	2	1	6	2	8	2	7
2	8	1	2	9	7	6	9	6
7	6	9	2	8	2	9	1	1
1	2	2	7	8	9	9	2	6
9	9	7	6	2	1	2	6	8
6	2	8	9	1	2	2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